

자녀의 최일선 교육자는 '부모'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불자로서의 부모

인간의 선천적 경향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마치 흙으로 그릇을 빚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동글게 빚어서 구우면 둥근 그릇이 되고 네모지게 빚어서 구우면 네모진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이때 어린이를 흙으로 비유하면 흙을 빚는 사람은 어린이를 둘러싼 인적 환경이다.

이 인적 환경 중 어린이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부모는 위대한 교육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누구의 교육자인가? 바로 내 자녀의 교육자이다. 모든 부모들이 부모이면서 동시에 교육자라는 생각을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자녀는 건전하게 자랄 것이다.

따라서 어린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가정'은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교육의 장소이며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최강의 교육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를 야단치기에 앞서 부모 스스로가 반성하는 교육 태도가 요망된다.

"너는 왜 그렇게 정돈 할 줄 모르느냐"라고 야단치기에 앞서 부모는 혹시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 특히 긴 시간을 함께 지내는 어머니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6>



그림 · 이준석

▲초등학교 교사: 가정교육이 이렇게 없는 곳이 어디 있담. 어떤 여성이 이 예의 어머니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머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 자식아!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치 않는다. 너의 아버지편 식구들이란 모두 다 똑 같거든!

적인 발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는 넓게 탐색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으로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만 생활을 하도록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 발달에 필요한 문화적·심리적 요인의 결핍으로 문화실조(文化失調)에 걸리기 쉽다. 문화실조에 걸리면 지적인 지능, 언어능력의 결핍, 부정적 사회적 태도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자녀에게 넓은 환경을 탐색하게 하여 각종의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

자녀를 앞에서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동일시(同一視)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모방 대상이 된다.

얼마 전에 이런 광경을 보았다. 건널목에서 있었던 일이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이때 자녀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차가 없으니 건너가자고 잡아 다니며 재촉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막무가내로 빨간불이 켜졌으니 안된다고 버티고 있었다.

또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다. 초등학교 교학년 어린이가 건널목에서 깃대를 들고 교동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친구가 그 어린이에게 물었다. "재미있니? 나도 내주에 당번이야." 이때 교동정리하던 어린이는 "재미없어. 어른들이 말을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교육자로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체격이 크고 작음도, 지능이 좋고 나쁨도, 사회성이 많고 적음도, 정서적 풍부하거나 빈약함도 결국은 어릴 때의 가정교육에 의하여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간 성격의 기본적인 틀은 6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이 성격심리학자들의 이론이다. 이 시기에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재학습(再學習)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릴 적에 형성된 성격에 변화가 오지만 그 변화도 기본

적 성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몇 해전에 있었던 일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이북 소재) 동기 동창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1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5~6명은 큰 60년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이름은 물론 얼굴 기억조차 없었다. 저녁식사 때 옛날 학교 시절의 추억담이 벌어진 후 어렴풋이 2~3명을 상기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까발던 친구는 나이가 70이 된 지금도 까부는(?) 경향이 있으며 말이 의젓하던 친구는 지금도 그와 같은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가정이 과연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이 과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치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불자의 대부분이 어릴 때 부모 또는 조부모를 따라서 절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릴 때의 종교적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동일 종교를 믿는다는 예언요인(豫言要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모들 신심의 두터운 정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일정한 절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부득이하면 이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되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날은 자녀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한다. 맛있는 음식을 사 준다든지,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등으로 '절에 가는 날=즐거운 일

아이들은 부모행동 모방 가정은 중요한 교육장소

성격틀 6세이전 형성 다양한 경험하도록 배려

생활불교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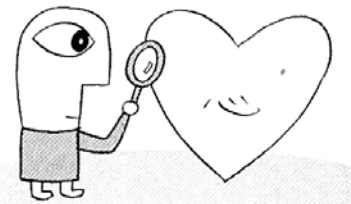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내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 일에 관심이 있다" "그건 좋은 관심사인데!"

관심이란 말은 이렇게 "마음을 둔다" "생각을 간직하고 대한다" 등으로 사용된다. 이럴 경우의 관심은 한자로 빗장관(關)과 관심(關心)을 말한다. 반면 관심에는 불 관(觀)자를 사용한 관심(觀心)이 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관찰하여 본다"를 관심(觀心)이라고 한다.

관심(觀心)은 우리들이 생활해 가면서 먹고 잠자는 일만 큼 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생겨난다. 생활한다는 자체가 관심있는 것을 행하는 동작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관심에 따라 산다. 관심이 있는 일에 하루하루

觀心과 關心

觀心-내 마음을 관찰하여 본다
關心-생각을 간직하고 대한다

루를 지내며 보람있는 생활을 한다고 흠족해하고, 관심도 없는 일에 정신력과 육체적 힘을 쏟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관심(關心)하는 일이다.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면서 내 마음에 관해서는 관심(觀心)을 기울여 준다. 관심(觀心)은 관심(關心)과 달라서 매우 힘든 작업이다. 마음이란 것 그 자체의 규명도 어렵거니와 마음을 마음이라고 보는 그 마음도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선종(禪宗)의 제 2조인 혜가(慧可)스님이 스승 달마조사에게 관심(觀心)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에 대한 달마조사의 대답은 명료했다.

"마음을 본다는 일, 즉 관심(觀心)하는 것은 모든 것의 전부이고, 모든 행위 모든 변화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마음을 알면 만행(萬行)을 다한 것이다. (觀心一法總攝諸行, 心萬法之本,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具備)" 이 말대로라면 관심을 할 수 있으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참고: 안길모췌 '이만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흠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I, II
- 불국사·석굴암 I,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계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 경엄미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씨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의 불교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영향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